

전주시, U-20월드컵 준비 본격화

추진단 공식 출범 '문화월드컵'으로 성공 개최 다짐

2017 FIFA U-20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시가 대회 추진 전담부서인 U-20월드컵추진단 공식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김대은 전북도축구협회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기획지원, 홍보, 시설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월드컵 추진단은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경기장 시설 보수와 함께 대회 볼 조성 및 준비사항 점검 및 행사 지원 등 U-20월드컵 대회 준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시가 U-20월드컵 추진단 사무실을 시청이 아닌 월드컵경기장에 마련한 것은 대회 성공 개최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공적인 대회 준비와 추진을 위해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등과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두 기관의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에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해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경기가 펼쳐지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설 정비 등 대회 준비 작업도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주시는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승수 시장과 박현규 시의회 의장, 김대은 전북도축구협회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2017 FIFA U-20월드컵 개최를 확정지은 지난해 9월부터 IT팀을 구성·운영해왔다. 또 지난 2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인 U-20월드컵 추진단을 신설하고 월드컵경기장 내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시는 개막전 개최 등 세계인의 시선이 전주에 집중되는 이번 대회를 전년대미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월드컵'으로 치러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문화·지역축제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 관계자는 "전주시가 U-20월드컵 개막전 개최도시 선정과 K-리그 관중동원력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겠다"라며 "시설 개선

등 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 FIFA U-20 월드컵은 내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부터 6개 대륙 2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전주에서는 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을 포함해 총 9경기가 열리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국 대표팀 경기도 성적에 따라 최소 2경기에서 많게는 4경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탈루·은닉세원 집중 추적

지방세 세무조사 본격 착수

전주시가 꼼꼼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 추이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는 법인의 결산이 마무리 되는 이달부터 추진되는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올 한해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통한 세원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3년 이내 대형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위주로 상반기

세무조사 대상 100곳을 선정해 월별로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발송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조사대상 법인의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조사는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는 한편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 및 부실신고로 한 번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탈루·은닉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소음환경기준 초과 항공대대 이전 중단”

전북녹색연합, 새만금환경청에 '부동의' 촉구

전북녹색연합이 전주 항공대대 이전 중단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를 촉구했다.

전북녹색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은 헬기운항으로 인한 예측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시가 지난 2월 작성한 항공대대 이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보완)에 따르면 예측소음도 조사를 실시한 전체 27개 조사지점 중

10~11개 지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가' 지역(농림지역 등)의 주간 소음기준 50dB(A)을 초과했고, 야간 소음기준 40dB(A)을 초과하는 것은 27개 조사지점 중에서 21~25개 지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항공대대 이전부지 주민들의 생활환경 소음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승우 사무국장은 "도도포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확인된 만큼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중단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도 '부동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도시관광해설사 운영

외국인 관광객 수요 대비

전주시가 도시 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도시관광해설사 운영으로 기존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관광을 도시 전역으로 확장시키기로 했다.

전주시는 2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코래일 전북본부 관계자, 서울지역 여행사 대표, 도시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전북전통문화연구소, 한국지역개발연구원 관계자 등 관광관련 기관과 단체, 연구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관광해설사 발대식을 가졌다.

도시관광해설사는 전주시가 1000만 전주관광시대를 맞아 기존 전주한옥마을 중심의 관광안내와 해설에서 벗어나 원도심 일대까지 관광해설 권역을 확대, 전주관광의 외연 확장에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구성된 도시관광해설사는 총

20명으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해설이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옥마을은 물론 전주부성 옛길과 남부시장·청년몰, 견고산은거리, 풍문예술거리, 자반벽화마을 등 광역적 개념의 정기투어와 단체 맞춤형 전주 원도심 해설투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주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수요도 전주시 전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도시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북전통문화연구소에 의뢰해 전문능력과 해설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선발해 전주 역사와 문화, 관광, 해설 및 안내, 사진 등 해설사가 필요로 하는 이론교육 40시간과 현장교육 16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또, 시나리오 구술시험 등을 통해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송은정 해설사는 "전주를 대표하는 도시관광해설사로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전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스타리얼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재 기자

40대 노숙자 병원에서 금품 훔쳐

전주 일대에서 노숙하던 40대가 주택과 병원 등에서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완산경찰서는 29일 주택과 병원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전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전주 일대 병원 방문객의 지갑을 훔치고 주택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7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진수 기자

'임금 체불' 시내버스 대표 70대女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9일 직원들에게 임금과 상여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 한모(7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3월 버스 운전기사 95명에게 지급할 임금 2억4700여만원과 상여금 1억7600여만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버스 운전기사 100명에게 지난 해 6~7월 임금과 상여금 등 총 7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미지급액을 모두 청산해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60회 걸쳐 300개 모아

중보이스피싱 조직에 수화물센터로 킷 배송

전국에서 대포통장을 모아 중국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대검찰청에서는 29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주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해 인출책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조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총 80회에 걸쳐 전국에서 300개의 대포통장을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15분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과 경부선 버스수화물센터에서 1택배 박스 13개를 찾아 자신의 차량에서 박스를 열어

대포통장 넘긴 30대 붙잡아

15장의 체크카드를 분류하다 잠복 추적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조씨가 갖고 있던 체크카드 15점, 대포통장 2점, 대포폰 4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조사결과 조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 모집 총책을 맡아 범죄에 가담해 총 16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조씨는 급전이 필요한 박모(45)씨 등 13명에게 접근해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거래금액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조씨에게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한 박씨 등은 박스에 담아 전국 각지의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우편 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냈고 조씨는 수화물 번호를 확인하는 간단한 과정을 거쳐 우편을 수거해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했다. /인진수 기자

주간(주말), 아간면접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함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문과 감정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p>〈강의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 1회 교육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p>〈김양욱 전담교수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면접지도 권위자 호강사 ·한국응변인협회 권위 회장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저서 : '359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

※부별: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대학일반부, 면접지도,개인지도,주말반

(사)한국응변인협회, (사)한국응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 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